

시장경제면 장땡이나?

The Market Economy is not Best Policy

咸仁善/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건축

by Ham, In - Sun

참으로 내뺄기 싫은 용어이지만 그것 아니고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이 주유소에서 『만땅』이라는 것과 밤에 택시 잡을때의 『따블』이라는 단어이다.

어제밤에는 『따블』을 안부르고 도대체 얼마만에 빈차가 서주는가를 오기로 세어보았다. 물경 20여분간 20여대의 빈차가 지나간후 어떤 골빈차(?)가 『싱글』로 받기로 하고 서주었다.

아예 밤에는 요금을 두배 받기로 하면 수산시장 생선중개인 모양 손가락을 흔들며 달밤에 체조하는 추접을 안 떨어도 되지 않겠는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 소위 『공식가격』과 『실질가격』이 따로 노는 것이 택시값 뿐이라?

얼마전 상업은행 명동지점장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것은 『공식금리』와 『실질금리』의 이중구조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은행금리를 가지고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 지점장은 물주에게 차액만큼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난도 하고 꺾기도 하다가 일이 터졌던 것이다.

낮과 밤의 요금이 다른 택시값의 이중구조, 책상위와 책상밑의 금리가 다른 이중구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반 사회주의 국가, 반계획, 반시장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완전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계획경제하에서는 가격이 비용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쇠고기 1kg 값을 1루블로 정했으면 생산하는 비용이 10루블이 되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1루블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폐쇄사회가 개방화가 되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컨대 러시아 엘친대통령의 한달 월급으로 흑백 TV 한대도 못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꺼내는가 하면 현실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무조건 이상적인 자유시장주의를 도입하다가 지리멸렬된 소련의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목하 우리사회는 동구권의 붕괴 등에 고무되어 「자본주의 승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찬미」로 들떠 있는 듯 하다. 건축계 역시 「탈권위주의」, 「문민화」, 「시장논리에 의한 건축계 재편」 등의 구호가 만발하며 이들이 건축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과연, UR 용역업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본있는 건설업체가 용역업을 겸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인가.

과연, 법인 설계회사가 큰 규모 용역을 하고 개인 설계 사무소는 작은 일만하면 전반적 설계의 일이 좋아질 것인가.

과연, 건축사를 대량 배출하여 시장논리에 의해 경쟁 도태하게 되면 수준이 높아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도 얘기 했거니와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자유시장경제체제를 운위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독재의 계획경제 논리와 군사문화의 권위주의적 잔재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으며 전반적인 시장의 수준이 아직도 일천하기 때문에 공급측의 일방적인 고급화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대다수 서민은 합승·총알택시에 시달리며 욕을하긴 하지만 모범택시 탈 배포까지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모범택시로 다 바꾼다고 택시문제가 해결되느냐



작금의 논의들은 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축사를 대량배출 해야 젊은 건축사들이 큰 사무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등 기득권층 이해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시장논리도 좋고, 자유경쟁도 좋다.

그러나 시장이 되 어떤 시장인가가 문제이다. 점점 건축시장은 『좋은생각을 가진자』가 아닌 『자본을 가진자』를 위한 불공정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화』, 『문민화』를 빙자하여 자본의 힘으로 건축의 논리와 양심을 지배하려는 기도는 철저히 봉쇄되어 한다.



말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건축수요의 수준은, 편법으로 평수 늘이기, 빨리 허가내기, 준공때 눈감아주기, 싸고 빨리 짓기인데 일방적으로 엘리트 건축을 대량 공급한다고 이들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는가 말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시판되기도 전 공고만 보고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차를 예약하는 나라,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정한 평수에 정한 가격으로 사기로 하는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수요측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채, 공급측이 무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인 것이다.

둘째, UR 을 빙자하여 자본(건설업)이 용역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은 단지 이윤극대를 피하는 자본의 요구일 따름이지 그 어떤 다른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체제가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체제이며 이 논리하에서는 자본력이 있는 건설업체만이 기술력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대외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열세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시공능력 결여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과거 중동특수등 물 좋았을 때 돈벌어 탄짓 하느라고 기술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지, 당국에서 용역업 하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본이 용역업까지 아우르겠다는 논리에 있어서 UR 등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소극적으로는 설계비마저도 아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나마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력으로 남아있던 전문가 집단의 양심까지도 구입하여 자본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벌산하 설계사무소들은 엄청난 물량작전으로 공공사업의 설계권들을 쓸어감과 동시에 재개발 등 공공적 부문에서도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는데 막강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말로는 건축이 문화입네, 예술입네 하면서 건축계가 시장경제논리, 즉 지극히 반문화, 반예술적 논리에 의해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좋은 건축은 돈 많고 큰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가? 물론 기술적으로 충실한 설계가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건축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적으로 더 의미있는 건축사회의 공공적 이해에 더 부합되는 건축은 제도화 되고, 보수적인 조직보다는 젊고 진취적인 집단에서 오히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논의들은 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축사를 대량배출 해야 젊은 건축사들이 큰 사무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등 기득권층 이해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시장논리도 좋고, 자유경쟁도 좋다.

그러나 시장이 되 어떤 시장인가가 문제이다. 점점 건축시장은 『좋은생각을 가진자』가 아닌 『자본을 가진자』를 위한 불공정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화』, 『문민화』를 빙자하여 자본의 힘으로 건축의 논리와 양심을 지배하려는 기도는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